

Ⅱ '딸들에게 들려주는 리더십 이야기' 추천사 Ⅱ

이 땅의 딸들에게 희망을!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연이어 탄생하고 있으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 파워가 넘쳐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딸들이 가야할 길은 멀니다. 남성 지배가 뿌리 깊은 사회에서 실력으로만 승부할 수 없는 영역이 제도적으로 남아 있으며,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과 싸워야 하는 원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힘겹기만 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딸에게 들려주는 리더십 이야기>란 읽으면서 칠레, 대만, 베트남, 중국, 핀란드, 라이베리아의 여섯 명의 여성들이 나에게 주는 감동은 특별했습니다. 정상의 자리에 오른 이들이지만 부유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고문과 무욕, 망명과 개인적인 아픔들을 극복해나갔으며 반여성적인 환경과 민주주의가 말살된 독재의 시대라는 몹으로 겪어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거듭난 확실한 실패와 성공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 스스로 무장하는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자신과 민족에게 주어진 과거의 기억들을 정리해야 하는 사명과 더불어 치밀한 현실주의적인 감각을 지니고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새삼스럽게 끌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대중과 역사와 소통하며 화해와 용서, 통합의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등장하는 세계 여성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특별한 여성 영웅들의 이야기가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딸들도 각자 처한 위치에서 그러한 리더십을 계발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우뚝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승희 의원의 <딸에게 들려주는 리더십 이야기>는 소녀들 누구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도전해 볼 만한 희망의 스토리입니다. 미첼 바철햇 대통령, 귀슈렌 부총통, 웅웁 티반 전 부주석, 구슈렌 전인대 부위원장, 사라카우 국회의원, 엘렌 존슨 설리프 대통령... 이들이 지닌 '6인 6색'의 리더십은 비단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든 영역의 리더십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